

어메니티의 개념, 기원과 역사, 분류에 관한 연구

임 형 백

서울대학교 대학원

A Study on the Concept, the Origin and History, and Classification of Amenity

Hyung Baek Lim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ept, the origin and history, and classification of amenity. Amenity is a new approach about nature, environment and the world. The concept, origin and classification of amenity was widely diversified, however, the concept of amenity was inclusive and abstract, so amenity was easier to recognize than to define.

Even though m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amenity, however, the movement or practice of amenity in Korea was still in infancy stage. This paper was an exploratory study of amenity and more detailed further studies on amenity should conducted in Korea.

It was suggested that we should not start on philosophical question of amenity. We should rather start on practical problems of how to put into practice to insure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to conserve nature, to study practical dimensions of amenity, and to develop indicators to measure amenity.

Key Words : Concept, the origin and history, and classification of amenity

I. 서 론

동양과 서양의 사상은 출발점에서부터 많은 차이점이 있다. 동양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며 따라서 성(the sacred)과 속(the profane)을 구분하지 않았다. 반면 서양은 직선론적 역사관을 가지며 따라서 성과 속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의 종교인 불교와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보아도 명확히 나타난다.

서양에서는 초기에는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며 인간은 나약하고 때로는 무가치한 존재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다가 Socrates(B.C. 470?-399) 이후 서양

에서 인간이 철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 그의 제자 Aristotle(B.C. 384-322)의 이데아 사상 이후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서양을 지배해 왔다.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서양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자연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희생을 감수하여야 할 존재로 여겨졌으며, 삶의 공간을 인간의 능동적 힘으로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으며, 이의 실현방법이 수학과 이성을 기초로 한 서양의 과학문명이었다. 과학이 인간을 질병과 기아에서 구하고 산업혁

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이러한 서양의 사유방식은 근대화와 민주화의 동의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전쟁 나아가 핵무기로 인한 인류공동의 문제가 제기되고 경제성장 일변도의 삶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물질적 풍요 이외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추구가 시작되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발전과 번영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잘못 이용되면 오히려 인류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임형백·이종만, 200: 343).

환경과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도 이러한 시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환경·정보·복지·문화·교육·여성'의 시대이자 '생존·생명'의 시대라고 한다. 각 분야마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던 서양식 이분법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의 추구이다. 인간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던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대체의학을 추구하는 것이나, 홀리스틱(holistic) 사유 등은 이러한 전통적인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실망 내지는 불만족의 표현이다. 농촌에서의 어린시절을 경험한 사람이나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고향하면 떠오르는 감정이 어메니티의 느낌이고, 이러한 공간이 바로 전형적인 한국의 어메니티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동안 경제성장의 뒷면에서 이러한 어메니티가 파괴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과정이 진행중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단계이며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

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개념, 기원과 역사, 그리고 분류의 개관을 살펴보았다. 이는 어메니티에 대한 시론적 연구의 하나이며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어메니티 등장 of 시대적 배경

어메니티 등장의 시대적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은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인간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과학의 발달이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갈등, 핵무기 등으로 인한 인류의 생존 위협, 그리고 환경파괴와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가져오면서 과학에 대한 절대적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modern)는 기계나 기술이 사람을 부리는 사태를 낳았다. 20세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지구규모의 환경파괴를 거쳐 핵무기와 자원낭비는 인류에게 생존·생명의 절대절명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20세기를 '살인의 세기'라고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발달로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시기이면서 동시에 20세기는 실제로는 극도의 '反어메니티'의 세기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내에서도 A. Einstein(1879-1955)의 상대성 이론(relative theory)과 N. Bohr(1885-1962)의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의 등장으로 인하여 과학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과학의 상대성과 확률성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서 특히 환경과 인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삶의 쾌적함' 즉 '어메니티(amenity)라는 관점에서 21세기를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늘날 지구적 환경파괴를 불러온 것은 Descartes(1596~1650)의 이원론(二元論)이 가져온 근대성(modernity)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서양의 이원론 이후 자연을 인간이 인간과 분리된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어메니티를 주장하는 것이다.

자연을 지배하는 것 보다도 자연을 소중히 다루는 쪽으로 접근해야 하며, 넓은 의미의 어메니티는 인간의 활동의 모든 차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태학(ecology)과 같은 과학적 인식의 발전을 넘어서, 풍경, 건축물의 질 등 미적인 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고, 행동의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리वाद도 관련이 있다

(Augustin Berque, 酒井憲一, 1998, 재인용). 이는 서양에서도 많은 학자들(Horkheimer and Adorno, 1996; Jonas, 1994)이 주장해 온 바이며, 사회생태론이나 에코페미니즘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결국은 서양의 전통적인 환경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서양식 사유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그 동안의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나타내면 <표 1> 과 같다.

결국 어메니티는 전쟁과 불신, 과학문명의 맹

<표 1>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

구 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주된 관심	인 식 의 내 용
환 경 경제학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우선시. • 환경문제의 원인은 자원의 불완전한 배분과 체제의 비효율적 운영.
환 경 사회학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변동이 끼치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영향 • 인간이 만든 사회구조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에 관한 사회학적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해석. • 환경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 환경은 인간의 행위를 제약·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행위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는 구조.
사 회 생태론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사회의 모든 위계질서를 제거한 생태공동체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문제들과 사회구조 및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유(생태문제는 사회문제에서 나온다). • 생태문제를 변증법적 자연주의 또는 생태적 변증법으로 해결(생태적인 사유에 진화론적인 관점을 부여). • 생태문제를 동양의 신비주의와 결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정치형태나 삶의 형식이 달랐던 시대에서 형성된 동양적 이론들로는 당면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 환경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습득한 자연법칙에 대한 지식을 자연을 지배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

출처: 임형백 외 2인, 1998. 5, p. 40.

신으로 인류와 지구의 존속이 위협받게 된 20세기를 교훈삼아, 21세기를 평화와 믿음, 인간과 자연존중으로 참된 시대로 열어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작게는 생활인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서 주체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나가며 나아가서 국제적인 친교를 끌어내는 단계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을 없애고 대등하게 인류가 어메니티로 교류해 나가는 그러한 쾌적한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질이 권력이나 부 등으로 말미암아 편재되어 있는 것, 결국은 어메니티재(財)가 편재되어 있는 불평등성을 없애고 물질이 평등하게 리사이클해 순환하고 나아가 자유와 문화가 꽃피는 쾌적한 사회가 바로 어메니티가 지향하는 상태이다. 사람과 물질의 평등순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가령 과학·윤리·예술·사람과 물질에 대한 애정을 융합한 다음에 어메니티 사상에 의한 정보·교통수단의 향상, 욕망의 억제와 남을 배려하는 매너, 아름다움의 공유, 이웃사랑, 인류애, 지구애로 까지 승화시킴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메니티는 특정종교와 관계가 없는 시민운동에서 출발했지만 인류의 종교가 지닌 보편타당한 본질에 가장 접근하며 이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관련하여 어메니티의 근본문제는 크게는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 물음으로 귀결되며, 작게는 '인간이 지향하는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지역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어메니티 사상은 아직 완성된 사상체계는 없다. 한편 사상인 이상 발전, 정체, 소멸, 재생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다행히도 어메니티는 발생 이래 지그재그 걸음을 하면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다. 따라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어메니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 시점(時點)에서의 어메니티관을 고집해서도 안된다(酒井憲一, 1998: 47).

Ⅲ. 어메니티의 개념

1. 어메니티의 일반적 개념

어메니티라는 말은 '환경보전, 종합쾌적성, 청결, 친절, 인격성, 좋은 인간관계, 공생' 등 번역어만 무려 80여가지가 된다. 요약컨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어메니티의 번역어로는 쾌적환경, 쾌적성, 쾌적함, 사는 느낌이 좋음, 편안함, 윤택함이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이라는 번역어가 그 이전에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다음'이 많이 사용되고, 아주 최근에는 '종합쾌적성'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번역어를 모두 열거하면 환경보전, 쾌적환경, 쾌적성, 쾌적함, 쾌적감, 종합쾌적성, 쾌적공간, 쾌적주공간, 쾌적감각, 생활환경, 환경의 질, 생활의 질, 생활환경의 질, 도시환경의 질, 거주성, 사는 느낌이 좋음, 도시미, 미적 환경, 미관, 자연미, 역사미, 조화, 정연, 질서, 쾌적성, 편리성, 개성, 친수, 편안함, 윤택함, 풍부함, 풍요함, 여유, 배려, 문화성, 문화시설, 매력, 활력, 활기, 생기, 생명, 생명감, 안전, 안녕, 건강, 보건, 공중위생, 위생적, 청결, 생활감, 생활실감, 행복, 복지, 조용함, 쾌감, 호감, 기분 좋음, 인격성, 사람이 좋음, 몸짓, 좋은 인간관계, 프라이버시, 예의, 매너, 우아, 풍아, 풍치, 풍류, 티없음, 잘 차려 입음, 사랑, 이웃사랑, 우애, 향토애, 향토의 자부심, 인간성, 인류애, 지구애, 공생, 서비스, 더불어 기뻐함, 친절, 패셔너블, ~다음 등이다. 번역어가 다양한 것은 어메니티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어메니티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어메니티에 대한 정의의 다양화가 다양한 번역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酒井憲一, 1998: 53).

그러나 번역어가 다양한 것은 어메니티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메니티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메니티의 개념은 정의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메니티(Amenity)는 쾌적한 환경,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상쾌함 등으로 정의되며, 일상생활에서 보고·듣고·느끼고·맛보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인간과 인위적 구조물, 자연이 함께 하며 주민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위제거, 범죄와 사고 예방 등의 안전성, 공해방지·건강관리·환경위생 등의 보건성 공공시설의 질과 접근성, 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편리성, 오픈 스페이스의 보전, 노후주택 및 불량미관의 개선, 역사적 풍토 보존, 경관 보존 등의 광범위하고 총괄적인 개념이다.

2. 어메니티의 대표적 개념

대표적인 어메니티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J.B. Cullingworth(1964)

Cullingworth는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코끼리의 속담을 비유로 어메니티를 설명했다. 여기서 코끼리는 너무 커서 일부를 만져보아서는 전체를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어메니티도 정의하기보다는 인식하는 쪽이 쉽다고 생각한다. 즉 어메니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가령 어떤 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가, 그 비용은 (공공 혹은 민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 어메니티의 중요성 및 정도에 관해서는 상당한 불일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나. William Holford

Holford는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법률을 고찰한 영국의 도시계획학자이지만 관점은 도시계획분야라는 틀을 넘어서 어메니티를 생각했다. 어메니티는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적인 카탈로그이다. 그것은 예술가가 눈으로 보고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아름다움, 역사가 낳은 상쾌하고 친근감있는 풍경을 포함해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효용, 가령 주거, 따뜻함, 빛, 맑은 공기, 집안의 서비스 등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 또는 '전체로서 쾌적한 상태'를 말한다. Holford의 개념은 구체적인 어메니티의 요소를 예시하면서 실제로는 종합성을 어메니티의 특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아름다움, 친근한 역사성, 효용 등의 개별적인 어메니티 요소만으로는 참된 어메니티가 될 수 없으며, 그 요소가 주위와 나아가서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어메니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 채의 빌딩이 잘 서 있다고 해도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디자인으로는 어메니티 빌딩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외에 주위와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 1998)

어메니티란 '생활환경의 쾌적함'으로 번역된다. 자연경관에서부터 역사적 건조물·지역가로, 전통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 의료, 문화스포츠 시설, 치안 등 공공서비스까지도 포함하는 '사는 기분' 전체를 가르키는 사고방식이다. 무엇을 가지고 어메니티라고 말하는가는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 수준을 수량화해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경관이나 전통문화가 풍부한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공통적으로 '쾌적함'을 주는 공간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IV. 어메니티의 기원과 역사

어메니티 운동은 산업혁명하의 19세기¹⁾에, 영

1) 이에 대하여는 19세기가 아니라 18세기라는 주장도 있다.

국의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생긴 이상한 질병이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공중위생면에서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그 핵심은 생명구제이고, 특히 그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이 '생명축'이다. 또 '어메니티'의 어원은 라틴어의 아마레(amare: 사랑하다)→아모에니타스(amenitas: 쾌적한, 기쁜)에서 유래하여 영어의 amenity(쾌적함, 기쁨)로 됐기에 이는 어메니티의 '사랑'의 축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원상으로 '사랑'과 '생명'이 어메니티의 두 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사랑'축과 '생명'축이 어메니티의 좌표축이고 그 교차점이 참된 어메니티인 것이다. 어메니티는 공중위생 영역에서부터 생겨나 주가가 선(線)이 되고 면(面)이 되어 근대 도시계획의 상징이 되었다. 영국의 어메니티 관련법률이 공중위생법, 주택법, 도시계획법의 순으로 발전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酒井憲一, 1998: 79). 그러나 어메니티의 바탕을 사랑이나 생명으로 파악하는 이론에 관해서 '사랑'이란 말이 너무 모호하다는 반론이 있다.

이후 영국에서는 1967년 '시빅·어메니티법'이 제정돼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보존을 피하는 '보전지역'제도가 시행됐고, 1974년에는 '도시농촌어메니티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제도가 더욱 충실해 졌다. 또한 어메니티를 사는 느낌이 좋음, 편안함 등으로 번역하는 것도 사랑과 생명을 내포한 본질, 생명구제를 위한 공중위생을 원점으로 한 실천의 역사에서 보면 납득할 수 있다. 다만 상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시설 정비가 도시계획과 관련되고 점차 도시계획의 목표로 당연시되면서 공중위생을 강조하는 것이 사라지게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메니티 사상의 제창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하층노동자 주택지역에 대한 공중위생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중산계급의 쾌적한 교외주택만들기운동으로 나아갔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메니티를 산업혁명후의 더러운 도시의

출현에 대한, 안티테제(反定立)로서의 '중산계급의 미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어메니티에 내재하는 사랑과 생명의 빛에서부터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참된 어메니티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거기서 올바른 도시계획, 자연보호, 환경보전은 물론, 안전·보건·의료·복지어메니티로 유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메니티는 환경의 사상이라고 불린다. 발생지인 영국에서는 도시계획과 지방계획의 핵심개념으로 일컬어져 왔지만 인류의 역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어서 환경혁명기를 의식하게 됨에 따라 한결같이 환경의 사상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도시계획도 도시환경 만들기이므로 환경의 사상에 포함시켜도 이상할 것은 없다(酒井憲一, 1998: 47). 또 한 편에서는 어메니티는 문화개념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환경과 문화, 물질적인 면에서부터 정신적인 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참된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의 사상이지만 환경을 넘어선 더 큰 사상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酒井憲一, 1998: 47). 어메니티 획득을 위한 여러 차원과 수단을 나타내면 <표 2> 와 같다.

V. 어메니티의 분류

1. 사카이 겐이치의 6분법

어메니티의 분류는 지금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의 시민환경단체인 AMR(Amenity Meeting Room)회장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는 다음 6가지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가. 생명·안전 어메니티

안전의 근본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생명·안전'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다. 공해방지의 기본이며 재해예방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일 본의 경우 고베대지진 발생시 입은 엄청난 피

<표 2> 어메니티 획득을 위한 여러 차원과 수단

차 원	수 단
문화 가치의식	• 공중도덕심의 고양 및 개인의 자각, 교육의 충실, 지역주민활동, 기타
생활활동 산업활동	• 공해규제, 쓰레기대책, 공해방지협정, 건축협정, 기술자훈련 및 양성 등
인프라스트럭처	• 공공사업에 의한 공원과 도로 등의 정비, 공공용지의 확보 및 양성 등
토지이용 자연조건	• 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의 보호, 기타

출처: 酒井憲一, 1998, p. 97.

해는 생명·안전 어메니티 도시만들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대형참사를 볼 때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 생명·안전 어메니티이다. 위생, 의료, 간호, 보건, 복지 등의 제도 운영과 사람들 마음의 건강까지를 포함한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식이나 자연보호 평화 공생의 의식과도 연결된다. 안전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즉 도시기반의 정비, 방재대책, 노동안전에서부터 지역도로, 안전한 주택구조, 거실의 사물배치까지를 포함한다. 공해방지와 어메니티사이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해방지와 어메니티는 같은 맥락에 있다. '어메니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가 바로 '공해'이기 때문이다.

나. 자연 어메니티

인류의 쾌적함의 근원은 자연이다. 물과 녹음과 땅과 대기 그리고 생물을 지키는 어메니티이다. 생명 어메니티와 중복되지만 특히 동식물이나 풍토의 자연을 지키는 어메니티를 가르킨다. 강·하천살리기, 산림보호, 바다살리기 등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밖에 공원조성 등 인공적인 자연환경도 포함한다. 풍토(성) 어메니티라고도 할 수 있다.

다. 역사·문화 어메니티

오래된 지역가로를 포함한 역사적 환경이나 문화재의 보존·창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뮤직홀, 컨벤션홀, 문화센터, 정보미디어, 전람회장, 이벤트회장, 가로, 변화가, 고건축 민가, 학교, 교육, 스포츠 등 쾌적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적 분위기에 관한 어메니티이다. 특히 역사는 민족의 쾌적함의 근원이므로 중요하다. 환경 어메니티로부터 문화 어메니티로 확대되는 것이 눈에 띈다. 느낌이 좋은 사람, 매너, 품격있는 문장이나 예술과 그 즐거움 등도 여기에 속한다.

라. 미적 어메니티

도시디자인이나 패션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녹음이나 물 그리고 손으로 만든 하이터치의 아름다움이 요망된다. 시각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조용함의 아름다움, 프라이버시, 마음씨 고운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미적 어메니티는 현대 프랑스가 '아름다움과 질로 되돌아가는 시대'라고 외치고 있는데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이테크시대인 현대에서는 자연적인 미적 쾌적성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미적 쾌적성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마. 편리 어메니티

확실히 편리함이란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원 및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너나 할 것없이 자동차로 배기가스를 내뿜어 대고 휴대폰의 편리성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행복이란 것이 꼭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편리한데 불감증에 걸려 점점 편리 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오히려 인간소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미디어는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반대편적인 개발을 억제하며 나아가 반대편적인 억제를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방안을 강구할 ‘테크노 어메니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바. 개성·종합 어메니티

하나의 사물에 어메니티 요소가 있어 어메니티적이라고 해도 주위와의 조화나 전체로서의 정합성이 없으면 어메니티라고 볼 수 없다는 Holford의 정의처럼 개성과 종합을 합친 개념이다. 그러나 ‘개성 어메니티’와 ‘종합 어메니티’로 나눠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8분법

①생명·안전 어메니티, ②건축·주거 어메니티, ③지역창조 어메니티, ④지구환경 어메니티, ⑤역사·문화 어메니티, ⑥경관 어메니티, ⑦자연 어메니티, ⑧복지 어메니티의 8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VI. 어메니티의 응용

그러나 어메니티의 개념이 농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사카 어메니티 파크(OPA)이다. 오사카 어메니티 파크는 오사

카를 흐르는 대천(大川) 부근에 쾌적한 마을에 탄생되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약 5헥타르의 광대한 대지와 “워터 프론트”라 불리는 대지를 활용한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였다. 정보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텔리전트 기기는 필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오사카 어메니티 파크는 선진기능성을 갖춘 도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요구되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쾌적성을 기본 목표로 하여 “인간을 위한 환경공간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관광지 중심을 하여 새롭게 들어선 오피스, 호텔, 쇼핑센터 등 다양한 생활공간은 풍부한 녹지공간과 함께 물과 어우러져 사계절의 변화를 모두 담아내고 있다. 도시내에서 사계절의 체취를 느끼고, 보고 같이 호흡하는 거리를 구축하고 있다. 大川연변의 毛馬櫻之宮公園을 따라 관수공원(親水公園)이 있다. 마을 전체가 물과, 꽃과 신록으로 가득 넘쳐나는 어메니티 파크로 되어 있다. 싱그러움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은 천신제, 가을은 산책코스, 겨울은 따스한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윤택유적 역할을 하는 도시생활공간이다. 오사카의 시가지를 굽어보는 트윈레지던스 타워로서 약 500여호의 쾌적한 주거공간. 풍부한 조경으로 뛰어난 주거환경과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물과 꽃, 그리고 선진적인 안전장치기능으로서, 편리한 도시생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오사카 어메니티 파크는 도시내에서 어메니티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VII. 결 론

어메니티는 영국에서부터 출발하여 기존의 환경과 자연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작게는 자연조건에서부터 출발하여 토지이용, 인프라스트럭처, 산업활동, 생활활동, 가치의식, 문화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작게는 생활인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서 주체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나가며 나아가서 국제적인 친교를 끌어내는 단계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상체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며 명확한 체계나 정의보다는 하나의 인식의 틀 내지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어메니티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어메니타와 관련하여 크게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 물음보다는, 작게 '인간이 지향하는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지역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독창성과 조화를 기초로 삶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메니티의 여러 차원과 수단에 대한 연구와 지표설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I. 참고 문헌

1. 권오상 외 2인, 2001. 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 김정식·황한철, 2002. 03, "농촌마을 정비를 위한 어메니티 평가지표 설정", 한국농촌계획학회 춘계 학술논문발표자료집, pp. 24-21.

3. 김해창, 1999,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 서울: 열음사.
4. 사카이 겐이치 지음, 김해창 옮김, 1998, 어메니티, 서울: 뜨님.
5. M. 호르크하이머·T. W. 아도르노 지음, 김유동 외 2인 옮김, 1996,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6. 일본홀리스틱연구회 지음, 송민영·김현재 옮김, 1999, 홀리스틱 교육의 이해, 서울: 책사랑.
7. 임형백 외 2인, 1998. 5,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시각과 그 한계",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5권 제1호, pp. 31-44.
8. 임형백·이종만, 2000. 12, "환경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사회적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 제2호, pp. 333-345.
9. 한스 요나스 지음, 이진우 옮김, 1994,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울: 서광사.
10. J. B. 카링크° 와ース, 1972, 英國の都市農村計劃, 久保田誠三監譯, 都市計劃協會.
www.amenity.pe.kr
www.bestreits.co.kr/etc/japan/build/osa-amenity.html
(2001년 10월 6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